DS INVESTMENT & SECURITIES

2026.01.16

제약·바이오_Issue Comment

JP 모건 2-3일차, 빅파마의 2026년 탐구

김민정 제약·바이오
02-709-2652
kim.min_jeong@ds-sec.co.kr

Eli Lilly, Novo, AZ, Abbvie, GSK

Eli Lilly/Novo, 비만치료제 시장 'Q' 변화에 주목

현재 DTC market의 확대에 따라 비만치료제 가격은 매우 투명하게 공개되어있다. 더불어 Eli Lilly는 향후 연간 high-single digit의 가격 하락을 명확히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비만치료제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P가 아닌 Q이다. 비만 치료에서 가장 큰 구조적인 변화는 'DTC market(Direct-to-consumer)'이며, 전통 보험 대비 가격 투명성 및 처방·리필 통제권 등의 장점으로 DTC에 대한 환자 경험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 보험 측면에서도 Medicare Part D에서 비만치료제 커버리지 확대를 제시하며 일순간에 Medicare 약 5천만명 이상이 비만치료제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1) 보험 시장에서의 비만치료제 침투율, (2) Medicare 확대가 상업시장에 미치는 영향, (3) ROW 국가에서 Q 성장률, (4) DTC market에서 P 하락이 Q 상승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할 것을 제안한다.

AZ, 종양학 리더로서 TROP-2 ADC 및 AI biomarker 시장 변화 제시

AZ는 new-ADC, RLT, Cell-based therapy, AI 등의 혁신 기술을 선도하는 빅파마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당사는 2026년은 AZ의 AVANZAR 및 TROPION-Lung07 임상결과로 (1) TROP-2 ADC의 가치 변화 및 (2) AI biomarker의 독립적인 가치 및 수익모델로서의 가치 평가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AVANZAR/ TROPION-Lung07이 성공할 경우 TROP-2 ADC를 기반으로 1L NSCLC 거대 시장 진입이 시작될 전망이나, 만약 실패할 경우 ADC 내 가장 기대되었던 target 중 하나의 몰락으로 ADC 시장 전체에서 구조적 회의감를 야기시킬 수 있다. 추가로 AVANZAR 임상은 QCS AI Pathology를 사용하였기에 성공하였을 경우, AI biomarker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성공 시 동반진단으로서 FDA 허가를 획득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는 AI biomarker가 독립적인 가치 및 수익모델로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AbbVie, Skyrizi/Rinvoq의 멈추지 않는 고성장 국면

Humira LOE에 대한 우려를 2025년 Skyrizi/Rinvoq의 성장으로 종식시켰다. 단, 이러한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핵심 성장 동력 3가지를 (1) Skyrizi의 IBD 침투율, (2) 우호적인 시장 성장 및 (3) 적응증 확장 second-wave 국면으로 제시한다.

GSK, Ultra-long acting에 대한 관심 지속

GSK 향후 핵심은 'Ultra-long acting(=장기지속형)'으로 cell-proposition 및 re-programming ADC 및 oligoneucleotide 등의 영역에 중심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Eli Lilly, 비만치료제 새로운 국면의 혁신 리더

[비만] '25년 접근성 확대의 시기 → '26년 본격적인 매출 성장 확인의 해

'26년은 본격 매출 성장의 해

2025년 GLP-1은 환자 접근성 및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시기였으나, 2026년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Zepbound/Mounjaro는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 출시되어있으며 후속 파이프라인 Orforglipron은 그보다 빠르게 모든 시장에서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릴리의 강점:
(1) 포트폴리오 (2) 규모
(3) 제조역량

비만 시장은 현재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으나 Eli Lilly의 전략은 후발주자와 차별화된다. 후발 주자의 전략이 (1) 보다 나은 약효, (2) niche 동반질환 적응증 획득 및 (3) 가격 경쟁력(=물량 전략) 등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면, Eli Lilly는 비만치료제의 혁신 리더로서 (1) 포트폴리오, (2) 규모 및 (3) 제조 역량으로 승부 볼 예정임을 밝혔다(후발 주자 전략에 대해서는 2025.08 당사가 발간한 비만치료제 인뎁스 보고서 참고). 단, Eli Lilly는 릴리/노보 두 선두주자가 현재 전 세계 GLP-1 생산 능력의 약 80%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가격-물량 전략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비만 치료제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Q

이미 비만치료제 가격 투명화
: 연간 high single digit 하락 전망

현재 DTC market의 확대에 따라 비만치료제의 가격은 매우 투명하게 공개되어있다. Zepbound는 DTC market 기준 $299~499/월, TrumpDx 기준 $350/월에 제공되고 있으며 Orforglipron은 같은 채널에서 기본 가격 $149/월에 판매될 전망이다. Medicare 기준 Zepbound는 $245/월로 한정되며 본인부담금은 약 $50/월로 상한 설정된다. 더불어 Eli Lilly는 향후 연간 high-single digit의 가격 하락을 명확히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Q에 주목할 것
: (1) 공보험 (2) 사보험 (3) ROW (4) P-Q 상관관계

따라서 앞으로 비만치료제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P가 아닌 Q이다. (1) Medicaid/Medicare 채널에서 얼마나 빠르게 GLP-1이 침투할 수 있는지, (2) 상업보험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개화되는 지, (3) ROW 국가의 Q 성장률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지 및 (4) P가 낮아질 경우 Q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지가 GLP-1 매출 전망을 보다 정교하게 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제안한다.

ROW 국가 수요도 매우 높음!
(요샌 가격 덜 깎으니까 ROI도 좋을 것)

특히 브라질, 인도네시아, 중국 등과 같은 ROW 국가들(+영국까지도)에서 자비 부담 수요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li Lilly는 초기 bolus 수요를 통해 ROW 국가+영국 수요를 확인하였으며 향후 자비 부담 수요의 pool에 대해 보다 명확히 탐색하고자 함을 밝혔다. 특히 Orforglipron은 보다 낮은 가격(P에 따른 Q 변화를 확인하고 싶어서 많이 낮췄음) 및 유통 편의성 등을 보유하여 도달 범위가 더욱 넓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단, Eli Lilly는 MFN 정책을 토대로 글로벌 런칭 시 가격을 엄격하게 유지할 것으로 밝혔다.

포트폴리오: Orforglipron – 임상 3상 돌입한 신규 Asset 3가지

Tirzepatide/Orforglipron/ 후기 3종 에셋 보유
앞으로 'Target-Modality-적응증' 3대 축을 확장 예정

Eli Lilly는 2025년 Tirzepatide(상품명 젭바운드/마운자로)로 폭발적인 성장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Eli Lilly의 비만 포트폴리오는 최근 FDA 허가 신청한 경구 GLP-1 Orforglipron에 이어 Retatrutide(GLP-1/GCG/GIP), Eloralintide(high-selective Amylin agonist) 및 Brenipatide(GLP/GIP) 등의 임상 3상 에셋들로 확장하여 비만 선두주자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Eli Lilly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Target-Modality-적응증' 3대 축을 확장시켜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경구 Orforglipron:
(1) 주사공포 + 다약제 복용 고령환자, (2) ROW 국가, (3) 유지요법

경구 GLP-1 Orforglipron은 2Q26 내 출시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FDA는 Orforglipron에 대해 최종 승인 결정일을 2026년 4월 10일로 지정하였다. Eli Lilly는 Orforglipron의 시장을 (1) 주사 공포 환자, (2) 다약제 복용 고령층 환자(Medicare Part D), (3) 신흥국 시장 및 (4) 체중감량 후 유지요법 시장 등으로 꼽았다. 특히 Medicare Part D가 비만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시점과 Orforglipron 출시가 맞물린다는 점에서 복잡한 다양한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군들에서 Orforglipron이 보다 쉽게 '다약제 Regimen'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ROW = Orforglipron이 싸고 유통하기 좋음
'26년 말~'27년 초 출시 전망

더불어 Eli Lilly는 대규모 비만 인구가 있는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의 ROW 국가들에서는 주사제로 각 국가의 필요 가격대 및 volume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더운 ROW 국가들에서는 냉장 보관 및 유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Orforglipron은 국제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며 해당 시장에 대한 허가 신청을 완료한 단계이다. ROW 국가 출시는 약 올해 말 ~ '27년 초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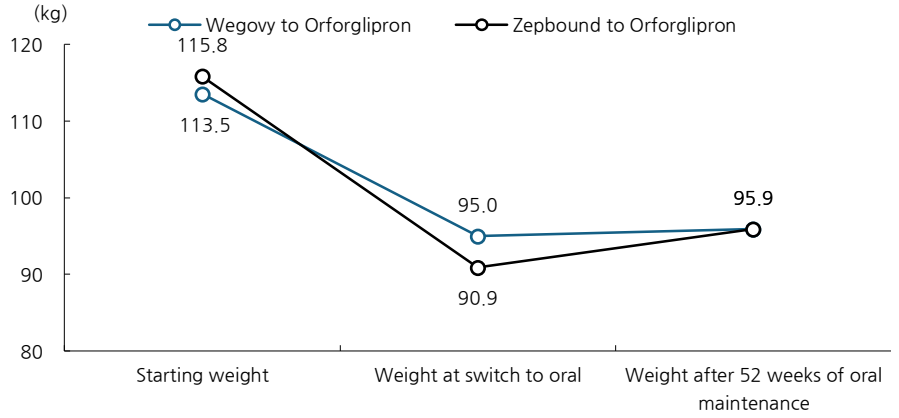
유지요법 임상 3상 Orforglipron 위약대비 효과 확인

향후 비만은 유도요법 및 유지요법으로 시장이 분화될 것이며 Orforglipron이 유지요법 시장에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근 Tirzepatide/ Semaglutide로 약 72주 투약 후 체중이 plateau에 도달하였던 환자 대상으로 Orforglipron 약 52주간 유지하는 ATTAIN-MAINTAIN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되었다. 일반적으로 Tirzepatide 투약 약 18~24개월 후 체중 감소가 더뎌지는 trough에 도달하지만 목표 체중에 도달하였더라도 약제를 완전히 끊는 것은 대부분 요요 현상을 유발한다. ATTAIN-MAINTAIN 임상에서 구제요법 Orforglipron을 사용할 수 있기 직전인 24주차에서 위고비-Orforglipron 전환 환자에서는 체중변화는 -0.1kg였던 반면 위약군은 +9.4kg 증가하였다. 젭바운드에서 전환한 경우에도 체중변화는 +2.6kg인 반면 위약군은 +9.1kg 증가하였다. 이러한 임상 데이터는 비만 유지요법 시장 개화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1 일라이 릴리 GLP-1 확장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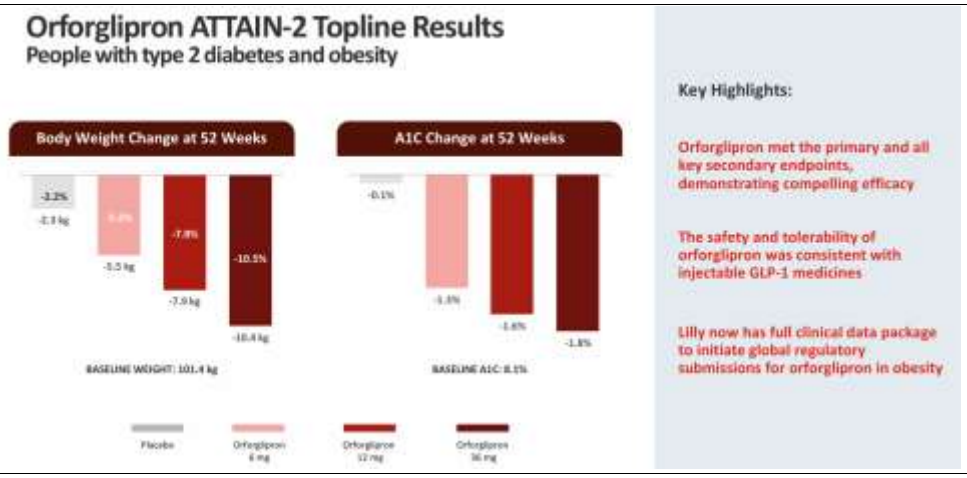
자료: Eli Lilly,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Orforglipron으로 유지요법 전환 시 체중 변화



자료: ATTAIN-MAINTAIN,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Orforglipron 임상 3상 결과 (in 당뇨+비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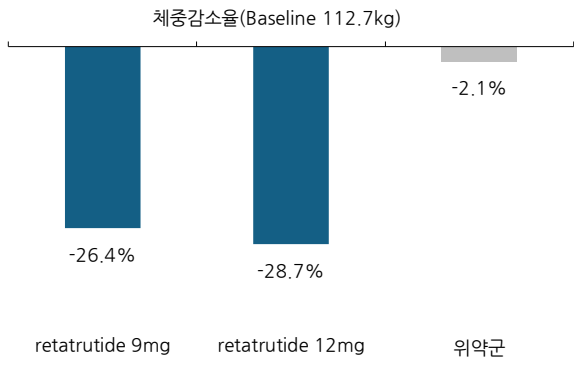


자료: Eli Lilly,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Retatrutide, 올해 현존 최고의 체중감소율 데이터 발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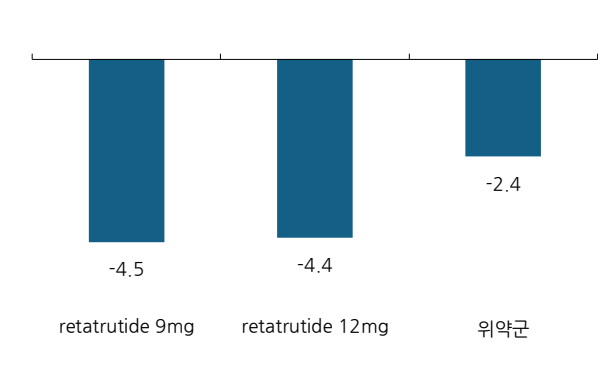
Retatrutide는 '25년 12월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TRIUMP-4 3상에서 Retatrutide는 68주 투여 시 최대 약 28.7%의 체중감소율을 발표하였다. Retatrutide는 2027년 허가 예정이며 올해 추가로 총 7건의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특히 TRIUMP-1(26.05)에서는 80주라는 긴 시간을 관찰하는 만큼 약 30% 이상의 체중감소가 기대된다.

그림4 Retatrutide 체중감소율 in TRUIM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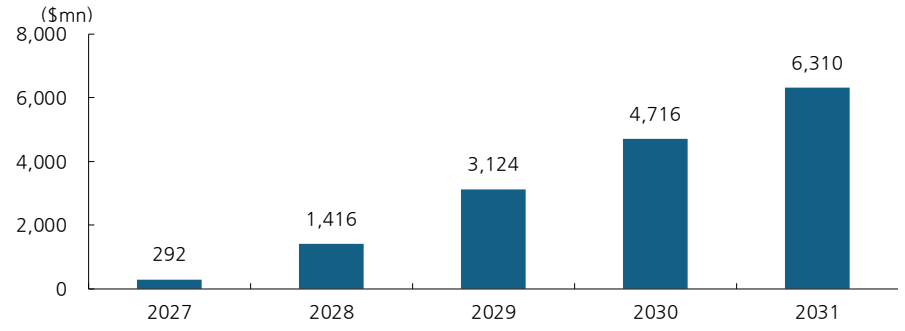
자료: Eli Lilly,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Retatrutide WOMAC pain score 감소율 in TRIUM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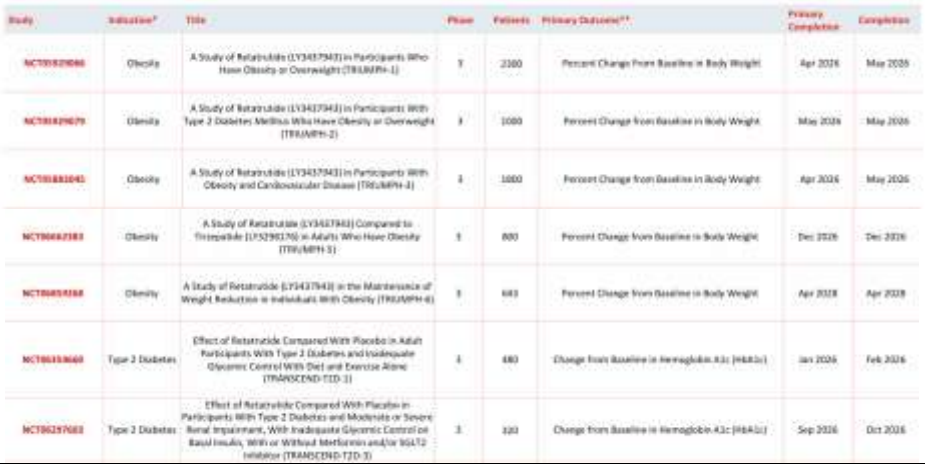
자료: Eli Lilly,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Retatrutide 매출액 추이 전망



자료: Globaldata,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Retatrutide 임상 정리



Study	Indication*	Title	Phase	Patients	Primary Outcome**	Primary Completion	Completion
NCT05929066	Obesity	A Study of Retatrutide (LY3437943) in Participants Who Have Obesity or Overweight (TRIUMPH-1)	3	2160	Percent Change From Baseline in Body Weight	Apr 2026	May 2026
NCT06329079	Obesity	A Study of Retatrutide (LY3437943) in Participa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Who Have Obesity or Overweight (TRIUMPH-2)	3	1080	Percent Change from Baseline in Body Weight	May 2026	May 2026
NCT05882045	Obesity	A Study of Retatrutide (LY3437943) in Participants With Obesity and Cardiovascular Disease (TRIUMPH-3)	3	1800	Percent Change from Baseline in Body Weight	Apr 2026	May 2026
NCT06662383	Obesity	A Study of Retatrutide (LY3437943) Compared to Tirzepatide (LY3298176) in Adults Who Have Obesity (TRIUMPH-5)	3	800	Percent Change from Baseline in Body Weight	Dec 2026	Dec 2026
NCT06859358	Obesity	A Study of Retatrutide (LY3437943) in the Maintenance of Weight Reduction in Individuals With Obesity (TRIUMPH-6)	3	640	Percent Change from Baseline in Body Weight	Apr 2028	Apr 2028
NCT06383660	Type 2 Diabetes	Effect of Retatrutide Compared With Placebo in Adult Participants With Type 2 Diabetes and Inadequate Glycemic Control With Diet and Exercise Alone (TRANSCEND-T2D-1)	3	480	Change from Baseline in Hemoglobin A1c (HbA1c)	Jan 2026	Feb 2026
NCT06297603	Type 2 Diabetes	Effect of Retatrutide Compared With Placebo in Participants With Type 2 Diabetes and Moderate or Severe Renal Impairment, With Inadequate Glycemic Control on Basal Insulin, With or Without Metformin and/or SGLT2 Inhibitor (TRANSCEND-T2D-3)	3	320	Change from Baseline in Hemoglobin A1c (HbA1c)	Sep 2026	Oct 2026

자료: Eli Lilly,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DTC market(self-pay)의 성장 가속화

DTC market
: 제약사가 환자 치료 접근 및 지속 전 과정을 통제 (vs. 전통 보험)

비만 치료에서 가장 큰 구조적인 변화는 'DTC market(Direct-to-consumer)'이다. DTC 프로그램이란 제약사가 보험/PBM/도매상/약국 등의 전통적인 유통구조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환자와 직접 연결되는 프로그램이다. DTC는 단순히 유통 채널의 변화가 아니라 '환자가 직접 치료에 접근하고 지속하는 전 과정을 제약사가 직접 통제한다는 점'에서 기존 보험구조(=PBM·보험사가 가격 및 치료 접근성을 결정)와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DTC market 장점
: (1) 가격 투명성 **(2) 의료진 접점** (3) 보험 비의존 구도 **(4) 공급안정성/리필 직접 통제** (5) 제약사 간 관계 축척

'25년 8월 비만 인덱스 보고서에서도 언급하였듯 DTC 현금 마켓의 활성화는 기존 보험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비만치료제 시장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DTC market은 (1) 가격 투명성(=환자가 직접 웹에서 공개된 실제 지불 가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음), (2) 제약사가 설계한 의료진 접점(ex. 지역 인증 의사 연결 및 telehealth를 통한 처방), (3) 보험 비의존 구조(=보험 유무와 무관하게 현금 구매 가능), (4) 공급 안정성 및 리필 관리 직접 통제(=환자가 직접 갱신 여부를 결정, 공급 불확실성 제거. 기존 보험 체계에서는 보험 승인 지연 및 리필 거절, 혹은 용량 변경 시 행정적 공백 등의 공급 불확실성이 대두되었음) 및 (5) 제약사와 환자 간 데이터 및 관계의 직접 축척 등의 구조적 장점이 생긴다. DTC는 특히 GLP-1은 중단 시 효과가 급격히 훼손되는 치료 영역이라는 점에서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환자의 통제감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비만 치료 영역에서는 의료진 앞에서 직접 대면을 수치스러워하는 환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핵심 루트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LillyDirect 한달 100만명 접속, TrumpDx 출시
→ '26년에도 DTC 강화 전망

실제로 가격 투명성 및 처방·리필 통제권 등의 장점으로 DTC 프로그램에 대한 환자 경험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으로부터 시작하여 영국, 글로벌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Eli Lilly는 자사 DTC market, Lilly Direct에서 2025년 누적 100만명을 달성하였으며 최근에는 매 월 약 100만명이 접속하여 현금 구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엄청난 증가 속도이다. 연방정부의 TrumpRx DTC 프로그램 역시 올해 1월 출시될 예정이며, DTC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은 2026년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DTC 프로그램의 확산은 Eli Lilly 단독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Ixlayer가 2025년 8-9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 30명 중 약 73%는 2026년 DTC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거나 시작할 계획(=42% 운영 중, 30% 내년 출시 계획, 21% 아이디어 적극 탐색 중)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50%는 DTC 프로그램이 향후 5년 내 표준 관행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나머지 44%도 '특정 치료 분야'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제약사는 DTC로 가격탄력성 시험 중
(가격 경쟁 가속화 야기하는지는 확인 필요)

현재 Eli Lilly는 이러한 DTC 프로그램으로 비만치료제의 가격 탄력성을 실험하고 있다. Orforglipron은 (내) 예상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149/월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P를 낮추었을 때 Q가 얼마나 확장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릴리의 실험임을 밝혔다. 당사는 이러한 DTC 프로그램의 확장은 장기적으로 비만치료제의 가격 경쟁을 가속화 시킬 수 있으며 Eli Lilly가 제시한 high-single digit 가격 감소율 이상의 감소를 이끌어낼 것인지를 추적할 것을 제안한다.

Medicare 비만 커버리지 개방의 물결

Medicare 커버리지 시작
: 약 5천만명 이상 접근 가능

보험 측면에서도 최근 큰 변화가 관측되었다. 2025년 11월, 트럼프 정부는 Medicare 가입자를 대상으로 GLP-1에 대하여 CMMI(the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Innovation) 특별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어 12월 23일, CMS는 GLP-1 비만치료제에 대한 BALANCE(Better Approaches to Lifestyle and Nutrition for Comprehensive Health) 모델을 발표하였다. 이는 이전 체중 감소만을 위한 비만 적응증 커버리지에 소극적이던 Medicare Part D의 중대한 변화이다. 일순간에 Medicare 약 5천만명 이상 접근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이러한 CMMI 시범 사업은 Medicaid 기관은 2026년 5월부터, Medicare Part D 기관은 2027년 1월부터 참여할 수 있다. 제조사는 2026년 1월 8일부터 RFA(신청요청서)에 응답해야 한다. 아직까지 자세한 운영사항은 비공개이다.

Out-of-pocket 월 $50 상한
: 가격 예측 가능성 제공
→ 적극적 채택 전망

'25년 11월 트럼프 발표에 따르면 Medicare/Medicaid에서 GLP-1 주사제의 가격은 $245/월로 한정되며 본인부담금은 약 $50/월로 상한 설정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DTC market, TrumpRx에서 GLP-1 주사제는 $350/월로 제공된다. 이러한 제한적인 out-of-pocket 가격은 환자들에게 '가격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의 적극적인 채택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가령, 현재 상업보험에서는 GLP-1 커버리지는 넓게 제공되지만 deductible이 높게 설정되어있다. 따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out-of-pocket 설정이 없다면 보험-DTC market 가격 차이를 쉽게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

BMI에 따른 단계적 커버 제공

이번 Eli Lilly는 이러한 Medicare Part D 커버리지 확대는 정부의 '과학적 검증 신호'이며 상업 보험의 의사결정(spill-over)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밝혔다. CMS는 임상시험 데이터에 따라 risk 대비 benefit 등의 검증을 통하여 계단식으로 커버 기준을 설계하였다. 가령 BMI 27~30 환자들은 ASCVD(ex. PAD/MI/Stroke 등) 혹은 당뇨전단계(당뇨 진행 약 93%를 막으며, 당뇨 진행 시 의료비가 급증하니까) 등 GLP-1 투여 시 임상적 이득이 큰 환자군들로 구성되었으며, BMI 30~35 환자는 위의 조건을 포함하여 추가 CV risk 바이오마커를 포함하고 있는 환자군들로 구성되었다. BMI 35 이상 환자들은 all-comers로 폭넓게 열어주는 구조를 채택할 예정이다.

Medicare 커버리지 = 상업보험 커버의 확대

현재 Medicaid/Medicare Part D 커버리지는 제한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Medicare 커버리지 확대는 약 60% 커버되고 있는 상업보험 GLP-1 커버리지의 확대를 야기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커버 비율은 6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높은 deductible, 커버리지 기준 등을 보유하여 사실상 보험 커버의 질이 낮았던 상업 커버리지에서 고용주의 기준을 낮출 것으로 전망한다. Eli Lilly는 이러한 상업보험의 확대를 위하여 (1) 가격 투명성 확대, (2) 기업 필요에 맞는 선택지 제공(ex. 저소득 근로자 비용이 높은 회사), (3) 비전통적 중개자 확대 등을 채택할 것으로 밝혔다.

차세대 성장축 : Neuro-science, eBC, Chronic Pain, Lp(a)

차세대 성장 축 4가지

Eli Lilly가 비만 이후의 차세대 성장축으로 가장 명확하게 제시하는 영역은 Neuro-scince, eBC, Chronic Pain 및 Lp(a)(=LDL 콜레스테롤+apo-lipoprotein)다. Lp(a)는 약 63mn명, Chronic Pain 약 51mn명, 조기 알츠하이머 약 20mn명 및 eBC 약 3mn명의 unmet needs가 높은 환자군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접근하고 있는 new-플랫폼은 ADC, RLT, RNA, GenMed로 꼽았다.

Lp(a) = Lepodisiran + Muvalaplin

Lp(a)는 Eli Lilly의 차세대 CVRM 핵심 타겟이다. 전세계 인구의 약 20-25%가 보유하고 있으며 (1) 강력한 동맥 경화 유발, (2) 혈전 증가를 유발하는 유전성 질환 인자이나 일반적인 고콜레스테롤혈증에 적용하는 스타틴이 효과가 없는 비컨트롤성 위험인자 특징을 가진다. 스타틴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질환 특성 상, 현재는 PCSK9 inhibitor 등으로 제한적으로 조절하고 있으나 unmet needs가 높다. Lilliy는 이를 siRNA, Lepodisiran 및 경구제 Muvalaplin의 조합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해당 파이프라인은 2029년 이후 임상 3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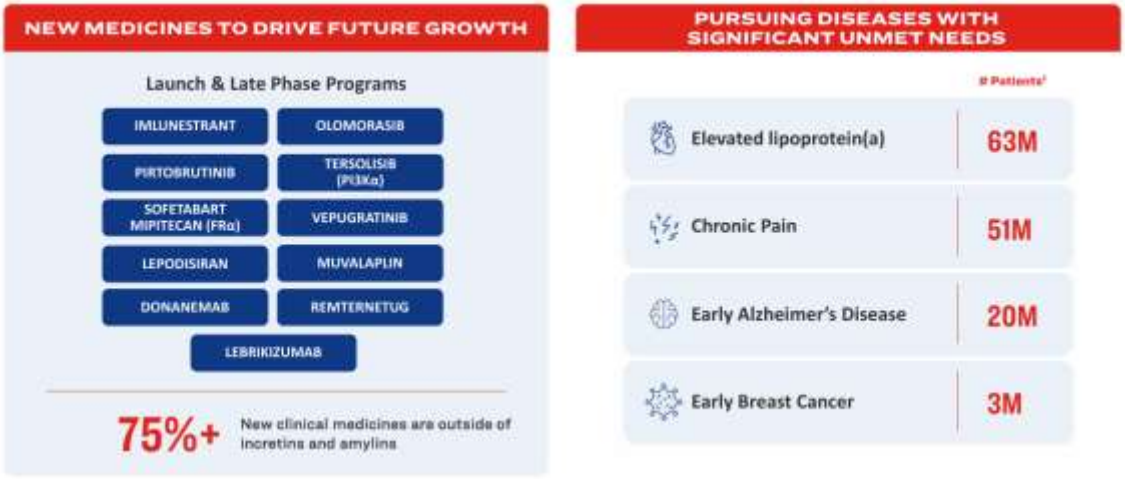
조기 알츠하이머 = Remeternetug, Donanemab

알츠하이머는 Remternetug와 Donanemab을 중심으로 조기 알츠하이머를 대상으로 개발하고 있다. Donanemab의 TRAILBLAZER-3 임상은 2027년 발표될 예정이나 경쟁사 Eisai의 Leqembi 등의 임상결과를 참고하여 MCI 이전 항아밀로이드베타 항체를 투여하는 조기 환자 치료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자신감을 표출하였다. 이 외 Neuro-science part에서 Lilly는 Gene therapy, siRNA, Mevidalen 등의 다양한 파이프라인으로 접근하고 있다.

GenMed 파트에서 희귀난청 전문 치료영역 직접 언급

또한 GenMed 파트에서, 'our gen med efforts looking at both specialty care like rare hearing loss, but also quite common diseases, as an example, in our Verve acquisition'로 희귀 난청과 같은 전문 치료 영역을 접근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작년 Lilly가 국내 알지노믹스와 희귀 난청질환에 대한 플랫폼 계약을 체결하였음과 궤를 같이 한다.

그림8 차세대 성장 축 전략



자료: Eli Lilly,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Lp(a) 파이프라인 개요

Study	Indication*	Title	Phase	Patients	Primary Outcome**	Primary Completion	Completion
NCT06292013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ASCVD)[2]	A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epodisiran on the Reduction of Major Adverse Cardiovascular Events in Adults With Elevated Lipoprotein(a) - ACCLAIM-Lp(a)	3	16700	Time to First Occurrence of Any Component of the Major Adverse Cardiac Event (MACE)-4 Composite Endpoint	Mar 2029	Mar 2029

Study	Indication*	Title	Phase	Patients	Primary Outcome**	Primary Completion	Completion
NCT07157774	Elevated Lp(a)	Assessing the Impact of Muvalaplin on Major Cardiovascular Events in Adults With Elevated Lipoprotein(a) – (MOVE-Lp(a))	3	10450	Time to First Occurrence of Any Component of the Major Adverse Cardiac Event (MACE)-4 Composite Endpoint	Mar 2031	Mar 2031

자료: Eli Lilly,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알츠하이머 파이프라인 개요

Study	Indication*	Title	Phase	Patients	Primary Outcome**	Primary Completion	Completion
NCT04437511	Alzheimer's Disease	A Study of Donanemab (LY3002813) in Participants With Early Alzheimer's Disease (TRAILBLAZER-ALZ 2)	3	1736	Change From Baseline on the Integrated Alzheimer's Disease Rating Scale (iADRS) (Overall Population)	Apr 2023	Nov 2028
NCT05738486[1]	Alzheimer's Disease	A Study of Different Donanemab (LY3002813) Dosing Regimens in Adults With Early Alzheimer's Disease (TRAILBLAZER-ALZ 6)	3	1100	Percentage of Participants with Any Occurrence of Amyloid-Related Imaging Abnormality-Edema/Effusion (ARIA-E)	May 2024	May 2027
NCT05508789	Alzheimer's Disease	A Study of Donanemab (LY3002813) in Participants With Early Symptomatic Alzheimer's Disease (TRAILBLAZER-ALZ 5)	3	1500	Change from Baseline on the Integrated Alzheimer's Disease Rating Scale (iADRS)	May 2028	July 2028
NCT05026866	Alzheimer's Disease	A Donanemab (LY3002813) Study in Participants With Preclinical Alzheimer's Disease (TRAILBLAZER-ALZ 3)	3	2996	Time to clinical progression as measured by Clinical Dementia Rating - Global Score (CDR-GS)	Nov 2027	Nov 2027

Study	Indication*	Title	Phase	Patients	Primary Outcome**	Primary Completion	Completion
NCT05463731	Alzheimer's Disease	A Study of Remternetug (LY3372993) in Participants With Alzheimer's Disease (TRAILRUNNER-ALZ 1)	3	1667	Percentage of Participants Who Reach Amyloid Plaque Clearance on Amyloid PET Scan for Remternetug versus Placebo	Apr 2024	Mar 2026
NCT06653153	Alzheimer's Disease	A Study of Remternetug (LY3372993) in Early Alzheimer's Disease (TRAILRUNNER-ALZ 3)	3	1400	Time to Clinically Meaningful Progression as Measured by Clinical Dementia Rate Scale (CDR)	Apr 2029	Oct 2030

자료: Eli Lilly,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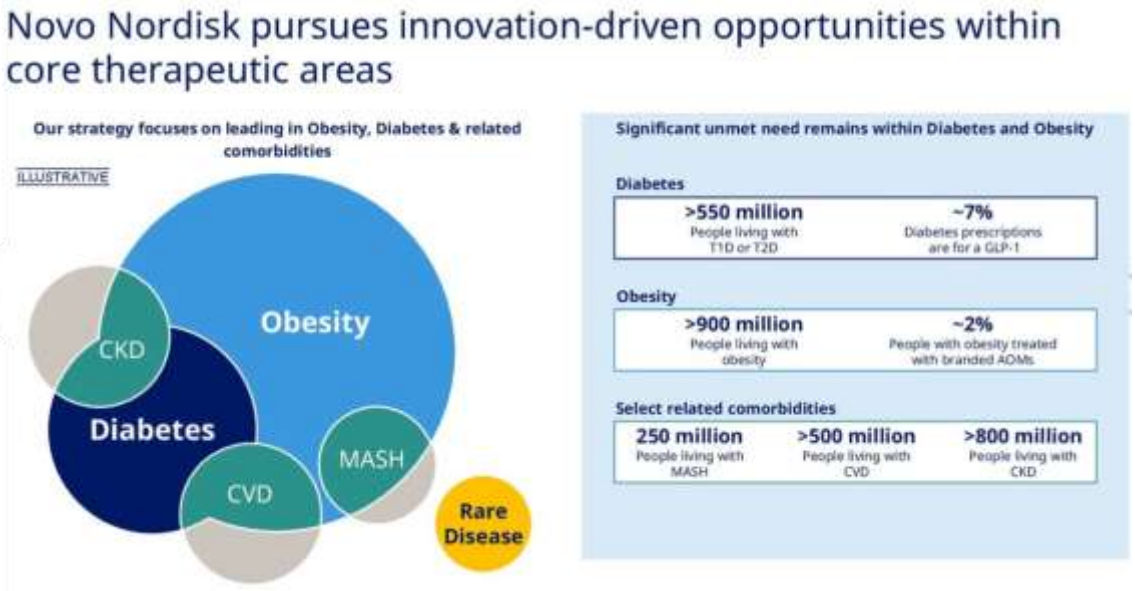
Novo nordisk, 잘하는 영역에 집중할게요

Novo nordisk는 항상 당뇨병에 집중해 온 회사이며 최근 비만 분야로 확장하며 혁신을 이어왔다. 당뇨/비만 두 적응증에서 CKD, CVD, MASH 등의 인접 질환으로 점점 확장해오고 있으나 Novo nordisk는 당사의 출발점은 항상 당뇨 및 비만 환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Novo nordisk는 (알츠하이머에서 대찬 실패 때문인가 싶지만 아무튼) 더 이상 CKD를 비롯한 비만/당뇨와 연관되지 않는 영역에 뛰어들지는 않을 예정이다.

2026년 Novo는 상업적으로 가속화 하여 먼저 (1) 고용량 위고비(7.2mg) 및 Wegovy Pill을 시장에 적극 출시하며 (2) R&D pipeline을 강화할 것으로 밝혔다. 이러한 R&D는 여러 후기단계 자산을 시장에서 가져오는 동시에 내부 자산을 가능한 빠르게 임상 3상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Novo는 Semaglutide LOE가 2032년에 도래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내부 자산을 보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적극 찾을 예정이다. 올해 말에는 CagriSema 승인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 이후 임상 3상에서 Amycretin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 외 올해 다수의 first-in-human trial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Novo는 현 비만치료제 시장이 의약품 시장보다는 소비재에 가깝다는 것을 명확히 하며, DTC market을 장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현재 Volume 확장을 위해서는 P의 하락이 불가피하며 특히 현재 가격으로는 약 10-20억명의 환자에게 도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림11 Core therapeutic Area에 집중하는 노보노디스크



자료: Novo nordisk,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straZeneca, 종양학 리더의 미래를 확인할 것

플랫폼 : New-ADC, RLT, Cell therapy, AI

AstraZeneca는 new-ADC, RLT, Cell-based therapy, AI 등의 혁신 기술(Transformative-technologies)을 선도하는 빅파마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당사는 2026년은 AstraZeneca의 종양학 리더로서 종양학 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모습을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2026년의 AZ event로서 (1) TROP-2 ADC의 가치 변화 및 (2) AI biomarker의 독립적인 가치 및 수익모델로서의 가치 평가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영역: 종양학/희귀질환/CVRM/R&I/V&I

AstraZeneca의 핵심 Therapeutic Area는 종양학, CVRM, 호흡기/면역학(R&I), 백신/면역치료(V&I) 및 희귀질환 등의 5가지로 꼽을 수 있다. 3Q25까지 누적 기준 AZ의 매출액은 Oncology에서 약 43%로 주된 매출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후 CVRM 약 23%, R&I 약 15%, 희귀질환 약 16% 등이 뒤를 따른다. 2030년까지 AZ는 약 $80bn 매출액 달성(vs. '24년 연간 sales 약 $54.1bn)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핵심 에셋으로 (1) Oncology에서 임핀지, 엔허투, 타그리소, Camizestrant(FDA 심사 중) 등, (2) CVRM/R&I에서 Breztri, Baxdrostat(FDA 심사 중, Priority Review), Saphnelo 및 (3) 희귀질환에서 Anselamimab, Gefurulimab등을 꼽았다.

AVANZAR 임상시험은 TROP-2 ADC, AI biomarker의 가치 급변 야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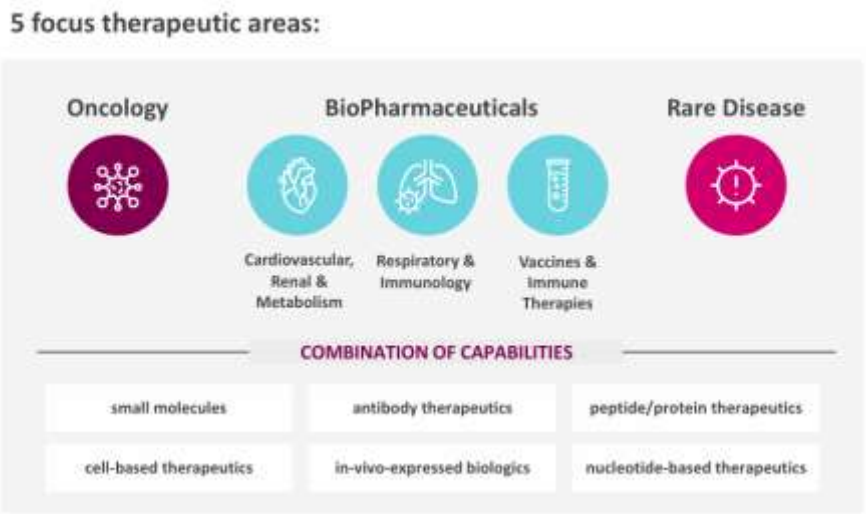
AZ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 하나는 임핀지이다. 2026년 임핀지는 Trop-2 ADC와 함께 Stage 4 NSCLC 1차 치료제로서의 효능을 확인하는 AVANZAR, 국소 진행성 간암에서 TACE 단독 대비 효능을 확인하는 EMERALD-3, chemo가 불가능한 방광암 수술전후요법 VOLGA 등의 임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 중 국내 투자자가 특히 주목해서 확인해야할 임상시험은 AVANZAR/TROPION-Lung07로서 해당 임상시험의 결과로부터 (1) TROP-2 ADC 및 (2) AI biomarker의 가치가 급변할 전망이다.

AI를 적극 활용하는 회사 중 하나, 특히 병리학적 CDx 활용에 주목 필요

AstraZeneca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AI다. AstraZeneca는 AI를 적극 활용하는 회사 중 하나로서 AI는 AstraZeneca의 drug discovery부터 개발-상업화-운영-health care delivery까지 업무 전반에 end-to-end로 내재화 되어있다. AZ는 (1) CMC 제조 scale up 시간 단축을 위해 IDA 시스템을 사용하여 최대 50%까지 단축을 시도하고 있으며, (2) AI CDx QCS(Quantitive continuous scoring)로 병리학적으로 치료제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미리 식별하고자 한다. AstraZeneca는 ADC 파이프라인 전반에 QCS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더불어 (3) 1월 13일, Modella AI를 인수하며 병리학 foundation model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이를 Oncology 포트폴리오에서 진단 최적화 및 표적치료제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내 Lunit이 AZ와 협업하여 EGFR 변이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 Lunit은 '25년 12월 DS(저희 말고 다이이치산쿄!)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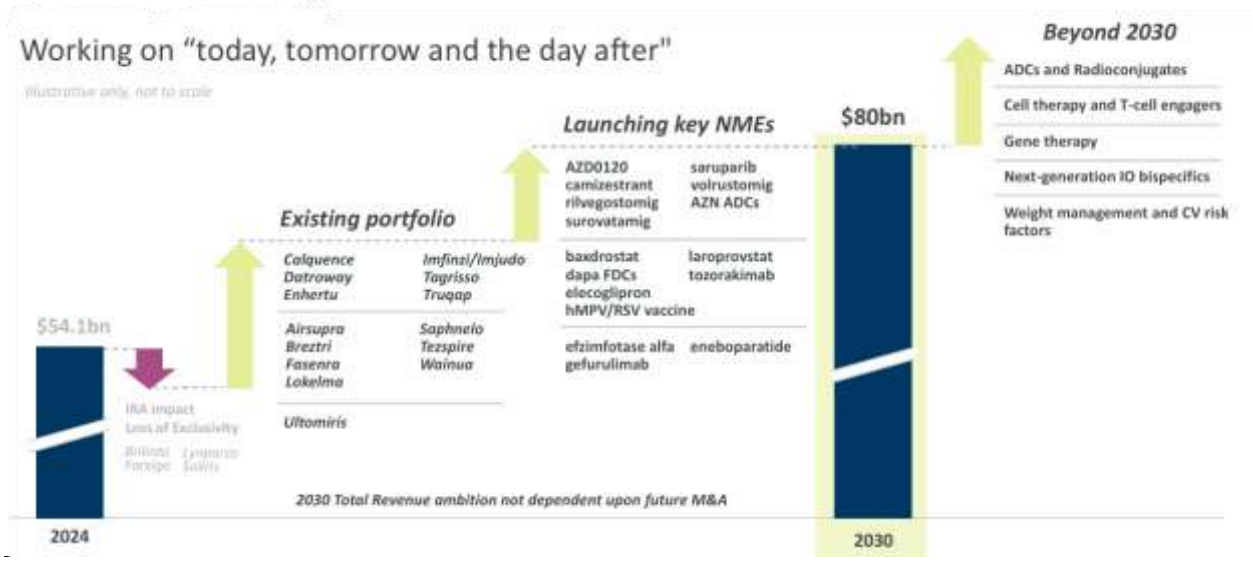
2개 항암제에 'Lunit SCOPE uIHC/IO'를 활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만큼 ADC 바이오마커로서 AI 병리학 적용 가능성을 향후 주목할만할 것으로 제안한다.

그림12 AZ의 핵심영역 5가지



자료: AstraZeneca,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2030년 $80bn 매출 달성 위한 AZ 로드맵



자료: AstraZeneca,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Oncology] 강자의 위엄…

폐암/유방암/위암 3대 고형암에서 지배적인 위치 확보

현대 Oncology에서 AstraZeneca의 위상은 남다르다. 다양한 고형암 중 가장 유병 환자가 많은 핵심 적응증 폐암, 유방암 및 위암에서 조기암부터 2L+ 치료제까지 end-to-end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지배적인 위치를 보유하였다. 이에 AstraZeneca는 고형암 영역에서 약 80%를 커버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2026년 임핀지 임상 데이터 기대: AVANZAR, EMERALD-3, VOLGA 등

2025년은 Oncology에서 AstraZeneca의 해로, 위암 수술 전후 요법(MATTEHORN)에서 임핀지가 승인받았으며, HER2 1L 치료제로 엔허투가 승인되었다. 임핀지는 MATTEHORN 뿐만 아니라 방광암 수술 전후 요법(NIAGARA), 간암 1차 치료 요법(HIMALAYA), SCLC 방사선치료 후 유지/보조요법(ADRIATIC), 절제불가성 Stage 3 NSCLC에서 방사선치료 후 공고요법(PACIFIC) 등에서 이미 강력한 효능을 입증하여 매출액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2026년 임핀지는 Trop-2 ADC와 함께 Stage 4 NSCLC 1차 치료제로서의 효능을 확인하는 AVANZAR, 국소 진행성 간암에서 TACE 단독 대비 효능을 확인하는 EMERALD-3, chemo가 불가능한 방광암 수술전후요법 VOLGA 등의 임상 발표를 앞두고 있다.

AVANZAR, TROPION-Lung07 임상에 주목 = 리가켐바이오 및 ADC 관련 기업 급등락 전망

사실상 국내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시 되는 AstraZeneca의 2026년 임상데이터는 AVANZAR 및 TROPION-Lung07로 전망한다. 국내 리가켐바이오의 기업가치가 TROP-2 ADC, LCB84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위의 임상 2가지는 TROP-2 ADC의 NSCLC 1차 진입 가능성을 확인하는 즉, ADC에서 TROP-2 target의 가치를 크게 좌우하게 될 핵심 임상이기 때문이다.

혈액암으로의 확장

더불어 고형암의 강자로 인상깊었던 AstraZeneca는 혈액암으로도 적극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있다. 주요 파이프라인 AZ0120(CD19xBCMA CAR-T) 및 Survotamig(CD19/CD3 이중항체 TCE)은 각각 ASH2025에서 인상적인 결과를 발표하였다. AZ0120은 post BCMA CAR-T 환자에서 약 80%의 sCR/CR을 달성하였으며 4L+ MM에서 78%의 sCR/CR을 달성하였다. Grade 3 이상의 CRS 혹은 지연성신경독성은 발생하지 않았다. AZ1020은 2026년 임상 3상을 시작할 예정이며 보다 앞선 라인으로도 이동할 목표가 있다. SLE 및 희귀질환에 대해서도 확장할 계획임을 밝혔다. Surovatamig는 r/r DLBCL에서 약 77% ORR을 확인하였으며 r/r FL에서도 약 92% CR을 확인하였다. 그 외 r/r B-ALL에서도 약 82%의 ORR을 달성하는 등 낮은 CRS/ICANS 안전성을 바탕으로 올해 임상 3상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NSCLC - TROP2의 미래를 확인하는 임상시험 2가지

AstraZeneca에 있어 '26년 가장 핵심이 될 임상결과는 1H26 발표(ASCO2026으로 예상)될 AVANZAR 이다. 아마 비슷한 시점에 TROPION-Lung07도 발표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임상시험의 결과가 TROP-2 ADC 의 향후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

AVANZAR:
1L NSCLC에서 TROP2+임핀지, 키트루다 대체 가능성 확인

AVANZAR는 Trop-2 ADC, Datroway와 PD-1 임핀지를 병용투여하여 1L NSCLC에서 기존 임핀지+chemo 요법 중 chemo를 대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임상시험이다. 실험군은 Dato-dxd + 임핀지 + carboplation을 투여하며 대조군은 Pembrolizumab(키트루다)+조직형별 platinum based 화학요법을 투여한다. 해당 임상의 목표는 TROP-2 ADC를 바탕으로 1차 NSCLC에서 임핀지의 매출액 확장이다. 여기서 인상깊은 점은 TROP-2 biomarker positive 및 전체 집단에서 각각 PFS 및 OS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TROPION-Lung07:
1L NSCLC 에서 TROP2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TROPION-Lung07 역시 1L NSQ NSCLC에서 키트루다+chemo와 직접 비교하는 임상이나 실험군이 Dato-dxd와 키트루다, chemo를 병용투여하도록 한다. 이는 이미 1L NSCLC에서 '절대 표준'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키트루다를 바탕으로 TROP-2 ADC, Datroway의 효과만을 확인하고자 하는 임상이다. 따라서 AVANZAR 임상과는 별개로 TROP-2 ADC 플랫폼이 NSCLC 1차치료제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상적 가치가 큰 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1L NSCLC는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종양 시장
: 성공 시, ADC 거대시장 확보 Vs. 실패 시 TROP2 타겟 몰락

현재 TROP2 ADC는 2L NSCLC에서 인상적이지 못한 결과를 확보하였으며 EGFR mut. NSCLC 2차 치료제 등의 niche 시장에 제한적으로 진출한 상태이다. 1L NSCLC는 키트루다가 글로벌 1위 블록버스터가 되게 해준 역사상 가장 큰 단일 oncology 거대 적응증 중 하나이다. 따라서 AVANZAR/ TROPION-Lung07이 성공할 경우 TROP-2 ADC를 기반으로 AstraZeneca의 극적인 거대 시장 탈환이 시작될 전망이나, 만약 실패할 경우 ADC 내 가장 기대되었던 target 중 하나의 몰락으로 ADC 시장 전체에서 구조적 회의감를 야기시킬 수 있다.

성공 시, AI 바이오마커의 시대 도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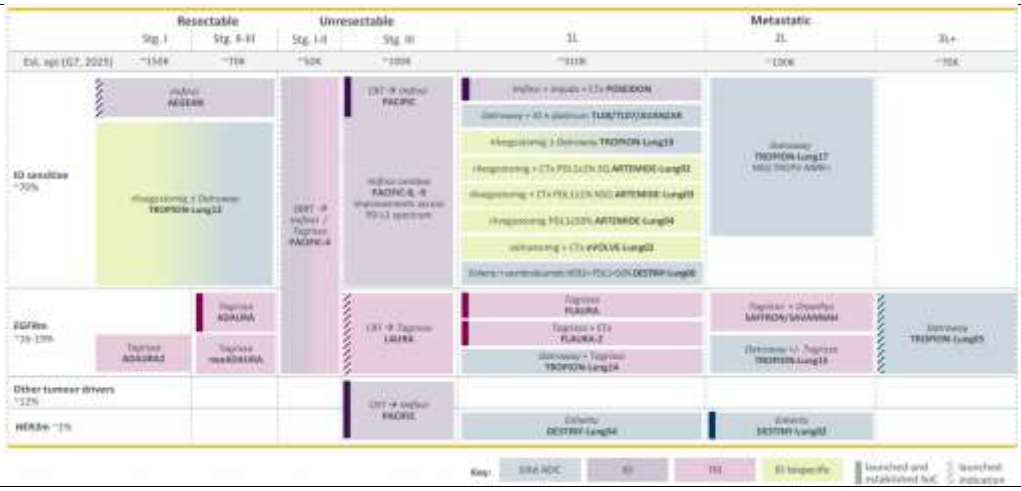
추가로 AVANZAR 임상이 성공하였을 경우, AI biomarker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AVANZAR 임상은 보다 적합한 환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TROP2 발현율(continuous score)/ADC internaliazation 효율/ 발현 패턴/ spatial information 등의 다차원 변수를 통합한 QCS 기반 AI Pathology 플랫폼을 적용시켰다. 임상 평가 역시 QCS high-score 환자군 및 전체 환자군에서 각각 OS와 PFS를 주요 평가변수로 설정하여 AI biomarker의 예측력을 전향적으로 검증하는 구조를 채택하였다. 이에 만약 AVANZAR의 QCS high-score 환자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HR 개선이 관찰된다면, 치료 효과를 설명하는 핵심 근거로서 AI Pathology가 제시 될 수 있다. 이 경우 AVANZAR 임상에 사용

된 AI biomarker 분석은 동반진단으로서 FDA 허가를 획득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는 AI biomarker가 독립적인 가치 및 수익모델로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14 아스트라제네카 올해 임상 3상 데이터 발표할 것들 모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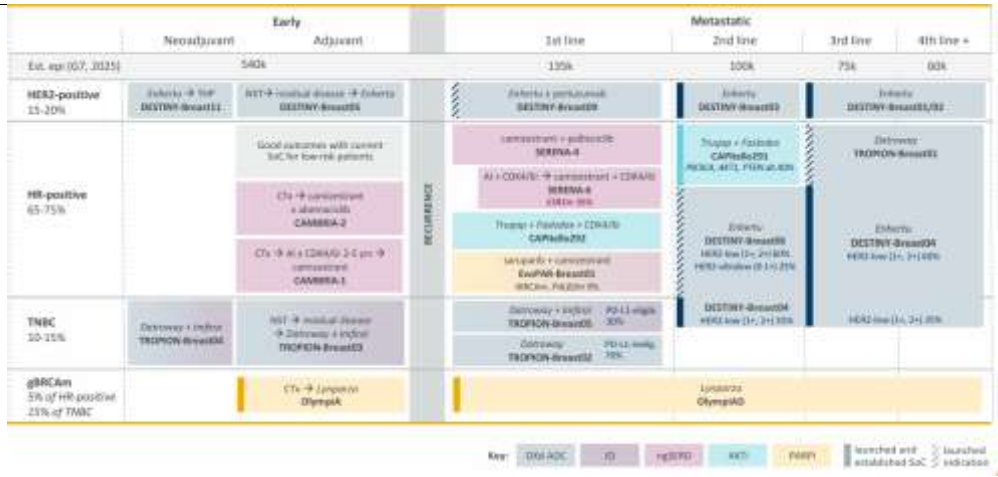
자료: AstraZeneca,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AstraZeneca in NSCLC



자료: AstraZeneca,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AstraZeneca in 유방암



자료: AstraZeneca,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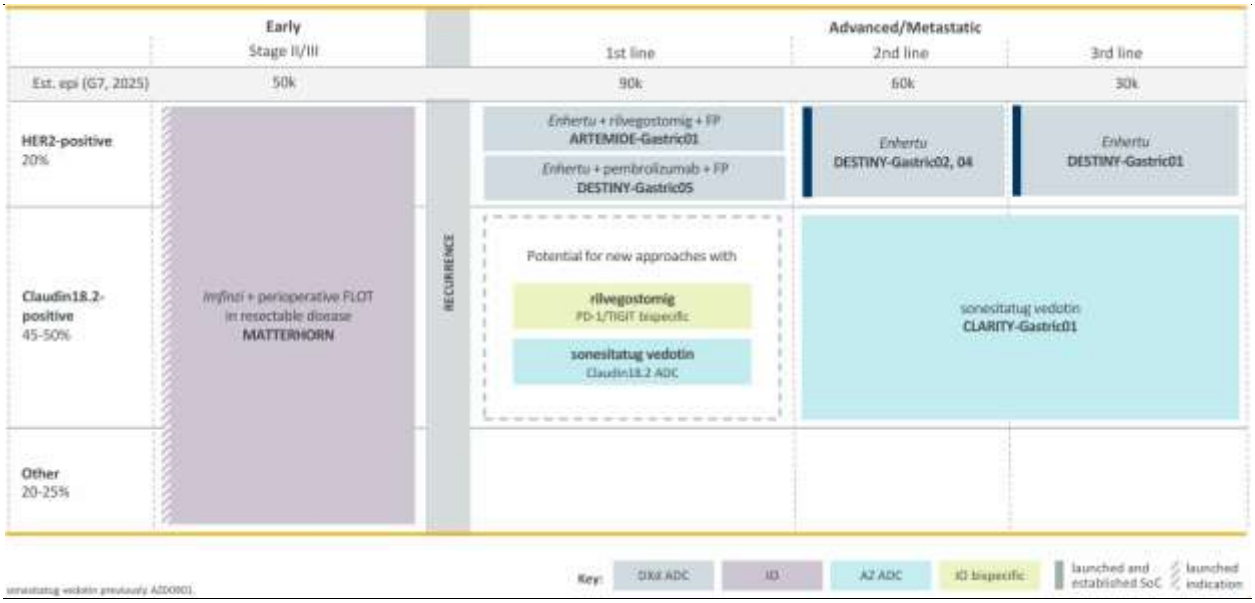
위암 - Claudin 18.2 ADC의 확장

AstraZeneca는 자사의 Claudin 18.2 ADC, SONi-B를 통해 진입할 예정이다. SONi-B는 2L 위암 pivotal data를 올해 상반기 확인할 예정이며, 1L 치료제로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위암 1차 치료제의 SoC는 Opdivo(성분명 Nivolumab)+chemo 및 Vyloy(성분명 Zolbetuximab)+chemo이다. 그 중 Vyloy는 Claudin 18.2 단일 항체로 CLDN 18.2 발현도 75% 이상인 고발현 환자군을 대상으로 허가를 획득한 상태다. 해당 임상시험에서 Vyloy ORR은 약 53.8%(FOLFOX 병용) 및 42.5%(CAPOX 병용)이었으며 Grade 3 이상의 부작용은 각각 약 72.8%(FOLFOX 병용) 및 86.7%(CAPOX 병용)로 나타났다.

반면 해당 시장에서 최근 국내 에이비엘바이오가 Claudin 18.2x4-1BB 이중항체 ABL111과 Opdivo+chemo 3중 병용요법을 통한 위암 1차치료제 우수한 임상 1b상 결과를 발표하였다. ORR 약 75.0%로서 Vyloy 임상 대비 월등히 우수하였으며 이는 Claudin 18.2 발현율 약 1% 이상인 광범위한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SONi-B가 2L 위암 치료제 단독 데이터를 발표할 경우, ABL111의 단독 데이터와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림17 AstraZeneca in 위암



자료: AstraZeneca,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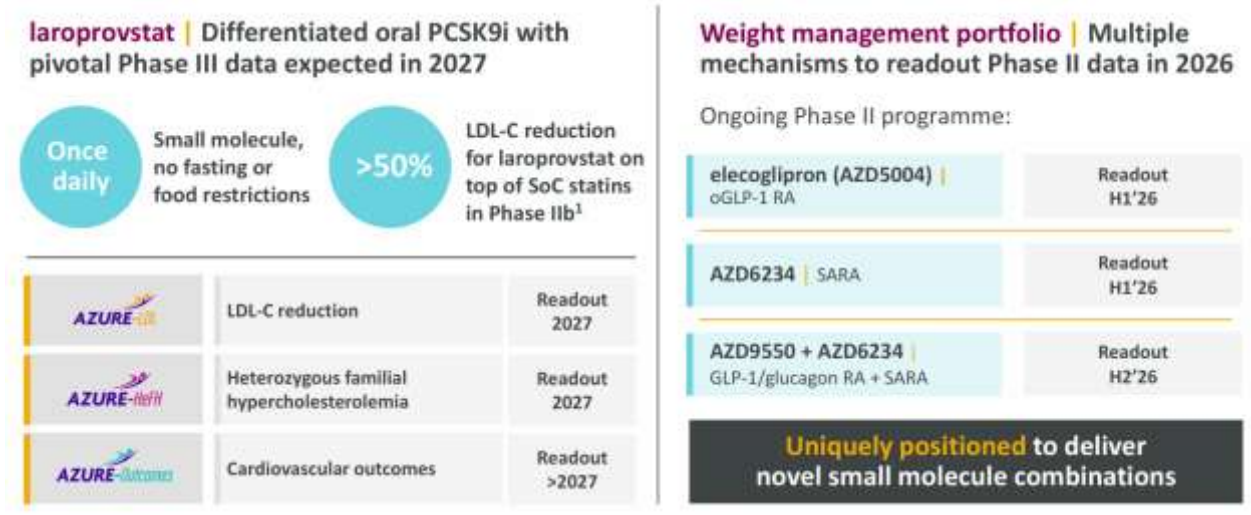
CVRM - 다양한 병용요법으로 기회 창출 전망

AstraZeneca는 비만 체중관리와 Cardiovascular risk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폭넓은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신규 병용 요법을 탐색할 예정임을 밝혔다.

Laroprostat(PCSK9 inh)는 Phase 2b에서 statin 병용하였을 경우 LDL-C를 약 50% 이상 감소시키는 우수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AZURE-LDL, HeFH 임상 3상(pivotal trial) 결과 발표가 2027년으로 예정되어있다. 그 외 1H26, 경구용 GLP-1, Elecoglipron 및 선택적 amylin 수용체 agonist AZD6234의 임상 2상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2H26에는 GLP-1/GCG agonist AZ9550 및 AZD6234의 병용 임상 2상 결과를 보고될 예정이다.

Baxdrostat(aldosterone synthase inhibitor)는 조절되지 않는 저항성 고혈압에서 best-in-class로 부상하고 있다. Bax24 Phase 3 및 BaxHTN Phase 3 모두 인상적인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현재 FDA로부터 Priority Reivew를 지정받은 상태이다. Baxdrostat은 올해 2분기 first-to-market에 진입할 예정으로 AZ가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림18 CVRM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자료: AZ,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bbvie, Skyrizi/Rinvoq의 멈추지 않는 고성장 국면

Humira LOE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킨 한 해

휴미라 LOE, Skyrizi와 Rinvoq로 해결

AbbVie의 2026년은 (1) 강력한 재무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운영 및 시행력 유지, 그리고 (2) 향후 10년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의 지속적인 진전과 가속화를 핵심으로 꼽았다. '23년 Humira LOE로 인한 총 $12bn 규모의 매출액 역풍에도 불구하고 2개년 연속 피크 매출에 도달하는 회복력을 입증하였다. '25년 Skyrizi 및 Rinvoq는 $15bn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Neuroscience 영역 역시 폭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3bn를 기여하였다. Humira LOE 영향을 제외한 성장률은 약 19%에 달해 강력한 모멘텀을 보유한다.

'26년 가이던스 : Humira 경쟁 심화 및 Imbruvica 약세 영향 반영

2030년까지 AbbVie는 high-single digit top line 성장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매출 대비 약 15%의 R&D 비중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단, '23년까지는 Humira LOE 국면 통과라는 특수 목적성이 강했으나 현 시점부터는 장기 전망 제시를 지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2026년 가이던스는 짧은 시일 내 발표될 예정이다. (1) Humira의 점진적 하락 및 경쟁 심화와 (2) 정부 약가 협상으로 인한 Imbruvica의 약세에 대해 언급될 전망이다.

PBM 개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 아직은 리베이트 매커니즘 작동 중

PBM 개혁과 리베이트 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AbbVie는 점진적인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어떤 형태의 시스템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하였다. AbbVie는 면역학 시장을 예로 들며 최근 선호 처방 목록(preferred formulary)에 등재된 약물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리베이트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하였다. 즉, 제도 변화 논의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스템은 여전히 점진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단기간 내 급격한 구조 전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단, 현재 AbbVie의 주요 브랜드 성과의 핵심 동인은 차별화된 임상적 가치와 브랜드 프로필이라고 강조하며 리베이트에 의해 경쟁력이 좌우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시장조차도 채널에 따라 반드시 리베이트 중심 구조는 아니며, AbbVie는 이러한 복합적인 시스템 환경에 익숙한 기업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더불어 이미 독일과 같은 하이브리드 시스템, 다양한 HTA(의료기술평가) 체계 그리고 국가별로 상이한 약가 및 유통 구조 속에서 사업을 영위해온 마케팅적 능력이 평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비만 - 미용 사업과의 시너지에 집중할 것

비만치료제, 미용시장에 집중할 것

한편 AbbVie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 자사 역량에 부합하는 방식의 선택적 진입 전략을 명확히 제시했다. 동사는 비만 시장은 반드시 참여해야 할 시장이지만 모든 방식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으며, 동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Aesthetics 사업과의 시너지다. AbbVie는 이미 Aesthetics 사업을 통해 DTC market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축적해왔다. 미용 고객들은 체중 감량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compounded drug 체중 감량 제품이 불과 몇 분기 만에 미용 시장 내 2번째 큰 세그먼트로 성장한 사례를 언급하였다.

ABBV-201외 타 파이프라인 추가 필요 : 내약성 높은 물질 (+장기 유지가능성)에 집중

Abbvie는 장기 지속형 Amylin ABBV-201은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1세대 GLP-1 치료제들의 내약성 및 지속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Abbvie는 GLP-1 투여자 약 30%만이 1년 이후에도 투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주목, 환자가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내약성 프로필 및 체중 감량의 장기 유지 가능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설정하고 있다. AbbVie는 BD 측면에서 현재 확보한 Amlyin, ABBV-201을 출발점으로 향후 추가적인 자산 확충을 시행할 예정이다.

Aesthetics(미용)

거시환경 변화 단, 회사는 일시적 지연으로 판단

최근 Aesthetics 시장은 거시 환경 변화로 인해 단기적인 변동성을 겪고 있다. 특히 필러 시장 및 그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의 거시 환경에 따른 일시적 수요 약화를 겪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지만 AbbVie는 경쟁사 대비 노출도가 낮아 성장 수혜를 누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단, 미/중 중산층 소비자들이 현재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시술을 미루며 관망세에 머물러 있지만, 치료를 고려하는 단계에서는 여전히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이 확인되었음을 전했다. 소비자 심리 내부 조사 결과, 해당 시장은 여전히 침투율이 낮으며 중장기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Abbvie는 이러한 '25년 매출 하락은 수요가 구조적으로 소멸된 것이 아닌 일시적 지연이라고 판단하였다.

2H26, 단기 toxin TrenibotE 출시 예고

현재 AbbVie의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압도적이다. 톡신 부문에서 Botox는 60% 초반의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필러 부문에서도 선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2H26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해 단기 toxin TrenibotE의 출시를 예고하였다. TreniboE는 투여 후 약 8시간 내에 거의 모든 효과가 나타나며 2.5주 후 효과가 사라진다. TrenibotE는 기존 보톡스를 대체하는 제품이 아닌 시험용 톡신(trial toxin)으로 포지셔닝될 예정이며, 이는 미용 시술을 망설이는 고객들의 첫 경험용으로 설계되었다.

Immunology - 멈추지 않은 Skyrizi/Rinvoq의 고성장 국면

'27년까지 Skyrizi 및 Rinzoq 매출액 가이던스는 각각 $20bn, $11bn를 유지하였다. 단, 현재 추세는 해당 수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Skyrizi와 Rinvoq의 핵심 성장 동력 3가지를 (1) Skyrizi(IL-23 inh)의 IBD 침투율, (2) 우호적인 시장 성장 및 (3) 적응증 확장 second-wave 국면으로 꼽았다.

염증성장질환에서 격변: IL-23inh으로 전환

염증성장질환(IBD=CD+UC)은 Skyrizi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전망하였다. 최근 염증성장질환 시장의 가장 급격한 변화는 IL-23 계열의 침투이다. 몇 년 전만해도 사실상 0%에 가까웠던 IL-23의 신규 환자 점유율은 현재 크론병(CD)에서 약 50%, 궤양성 대장염(UC)에서 약 40%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IBD 시장에서 IL-23 비중은 아직 약 12%에 불과하다. 건선 시장에서 IL-23 침투율이 60%를 상회한 것처럼 향후 4~5년 내 IBD에서도 다수의 환자가 IL-23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Skyrizi는 신규 환자 유입 속도에 비해 전체 TRx 점유율이 여전히 낮으며, TRx 점유율이 신규 환자 점유율을 따라잡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구조적 성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염증성장질환에서 Skyrizi를 backbone으로 활용하는 병용요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중증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Skyrizi/ABBV-382($\alpha 4\beta 7$ Integrin inh) 병용요법 임상 2a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중으로 데이터 확인할 예정이다. 해당 임상 2상 데이터를 확인한 이후 3상 진입 이전, 추가 용량 최적화 연구가 필요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Tremfya IL-23전환 가속화, Icotide Biologics 침투율 개선, 경쟁 X

최근 JNJ의 Tremfya가 IBD 적응증을 획득하였으며 경구용 IL-23 inh Icotide가 시장에 진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AbbVie는 Tremfya 진입 이후 Skyrizi의 신규 환자 유입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IL-23 inh 계열의 전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더불어 경구 IL-23 Icotide 대비 Skyrizi가 (1) 우수한 효능 프로파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2) 복약 편의성 측면에서 3개월에 1회 투여하는 Skyrizi가 매일 복용하는 Icotide 대비 보다 편리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Skyrizi 우위가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더불어 건선 시장은 현재 Biologics 침투율은 아직 약 35%에 불과하며, 이는 Icotide가 Skyrizi를 대체하기보다 아직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약 65%의 환자를 흡수하며 시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염증성장질환 CAGR 약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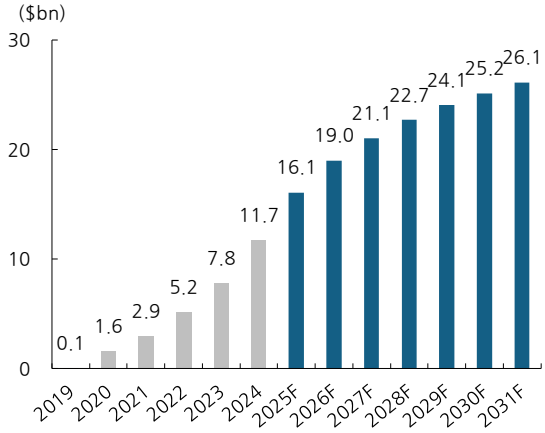
더불어 우호적인 시장 환경 역시 Abbvie에게 compounding effect를 제공하고 있다. Skyrizi의 주요 시장은 건선 및 건선성 관절염(PsA), IBD이며, Rinvoq는 류마티스관절염(RA), 건선성관절염(PsA), IBD 및 아토피성피부염(AD, atopic dermatitis) 등 광범위한 적응증에 적용된다. 이 중 Skyrizi의 핵심 적응증인 IBD는 매년 high single digit 고성장하고 있으며 Rinvoq가 확장하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AD)도 여전히 Biologics 침투율이 낮아 mid-teens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RA) 또한 가장 성숙한 시장임에

도 mid-single digit 성장을 유지한다. 이러한 시장 성장은 Abbvie 매출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Rinvoq 적응증 확대: 추가 매출 확대 국면 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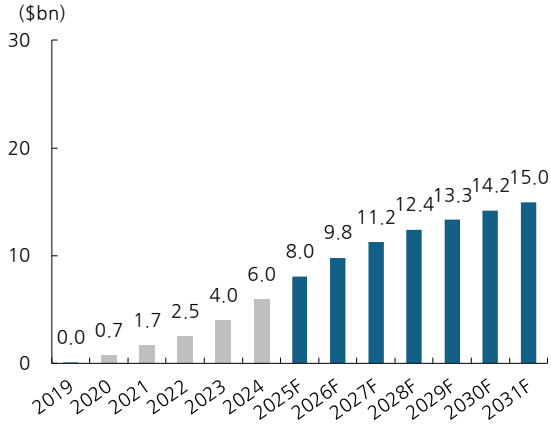
더불어 Rinvoq는 현재 핵심 적응증에 국한되지 않으며 두 번째 적응증 확대(second wave)를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 말까지 $2bn 이상의 추가적 성장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주요 모멘텀은 2026~2027년에 집중되어 있다. 거대세포동맥염(CGA), 루푸스, 원형 탈모, 백반증(vitiligo), 화농성 한선염(HS) 영역들에 대해 시장이 아직 second wave에 대한 내구성(durability)과 장기적 확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림19 Skyrizi 매출액 성장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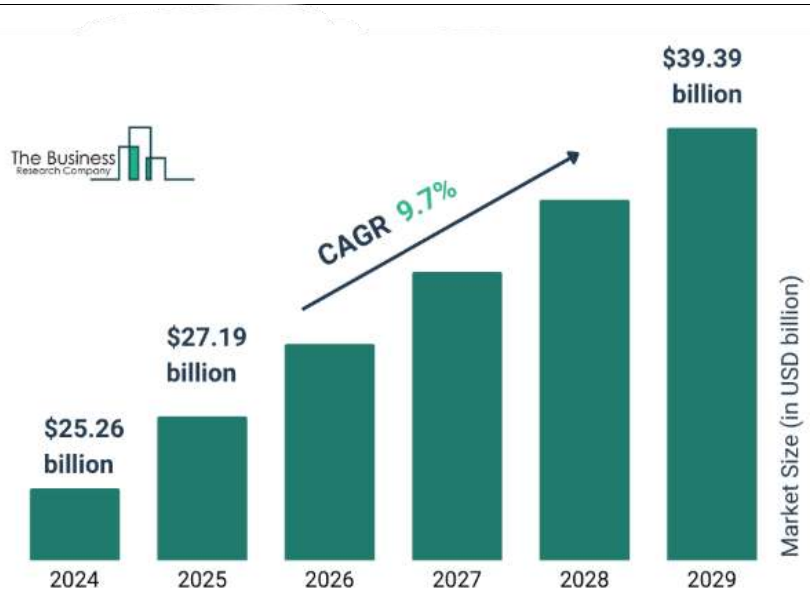
자료: Globaldata,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Rinvoq 매출액 성장 추이 및 전망



자료: Globaldata,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1 IBD 시장 성장률 CAGR 9.7% 전망



자료: Business Research company,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Neuro-science - 파킨슨/운동 장애 에셋 주목

AbbVie는 Neuroscience 부문을 Humira 이후 성장을 견인할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고 하며 현재 시장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사업부로 규정했다. 실제로 Neuroscience 부문은 3Q25 기준 +20.2% YoY를 달성하며 AbbVie의 모든 사업 분야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자리 잡았다. 또한 AbbVie는 Neuroscience 부문을 4개의 서브 세그먼트로 체계화해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1) 정신건강(Psychiatry), (2) 편두통(Migrane), (3) 파킨슨병 및 운동 장애 및 (4) 신경퇴행(Neurodegeneration)

파킨슨/ 운동 장애 영역이 가장 과소 평가된 세그먼트 : Vyalev 및 Tavapadon

이 중 파킨슨병 및 운동 장애 영역은 가장 과소평가된 세그먼트로 판단하였다. 아직 시장 침투가 낮은 상태에서 강력한 초기 성과를 보인 파이프라인이 Vyalev 및 Tavapadon 2개 존재하기 때문이다. Vyalev는 최초의 24시간 연속 피하 주입 제제로, 3상 연구에서 Levodopa/Carbidopa 대비 약효 지속 시간을 1.75hr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으며 약효 소실 시간을 1.79hr 감소시켰다. 위장에 튜브를 삽입하는 수술이 필요한 Duopa 또는 뇌심부 자극술(DBS) 대비 비침습적인 웨어러블(wearable) 펌프 방식을 채택하여 의료진의 처방 접근성을 높였다. 출시 첫 해를 조금 넘긴 '25년 Vyalev 매출 가이던스는$450mn이며, 동사는 이 수치를 보수적으로 시장 침투율 확대 시 향후 실적은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냈다.

Tavapadon(Cerevel 인수 확보 에셋)은 올해 말 출시 예정인 경구용 파킨슨병 치료제이다. Tavapadon은 운동 조절에 직접 관여하는 D1/D5 수용체만을 정밀 타겟하여 이상운동증(Dyskinesia) 유발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추었으며 낮 시간 졸음, 충동 조절 장애 역시 유의미하게 적게 발생하였다. MDS-UPDRS 점수에서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Part II(일상생활) 점수 TEMPO-1에서는 5mg -2.5점, 15mg -2.6점 및 TEMPO-2에서는 -1.5점을 기록하며,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일상활동 능력 개선을 입증했다. TEMPO-3 결과를 통해 위약군 대비 약효 지속 시간 1.1시간 추가 확보도 확인했다. AbbVie는 Tavapadon이 Skyrizi 및 Rinvoq와 유사하게 해당 치료 영역에서 best-in-class 치료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신건강(Psychiatry) 영역의 핵심은 Vraylar 및 932, Bretisilocin, Cerevel 인수를 통해 확보한 신규 자산 Emraclidine 등이 있다. Vraylar은 이미 $5bn 규모의 자산으로 AbbVie는 여전히 추가적인 성장 여력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932는 2H29 특허 만료가 예정된 Vraylar의 후속 파이프라인으로서 정좌불능증(Akathisia)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다. 932는 올해 조울증 데이터 판독에 이어 '27년 초 범불안장애(GAD) 데이터 발표될 전망이다. Emraclidine은 임상 실패 용량인 30mg을 넘어 75mg 증량 시험을 진행 중이다. Bretisilocin은 정항성 우울증(TRD) 치료제로 단회 투여로 3개월 이상의 효능 지속성을

보이고 24시간 이내 약효가 발현하는 에셋이다. 올해 2건의 추가 임상 2상 코호트 판독을 통해 리스크를 해소하고, 이후 규제 기관과 임상 3상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Oncology : ADC - IO 이중항체 병용요법

c-MET 및 SEZ6 ADC 핵심 최근 PD-1xVEGF 도입으로 병용요법 기대

AbbVie의 고형암 전략은 자사의 ADC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기존 ADC를 넘어 새로운 페이로드 기술을 적용한 c-Met 및 SEZ6 target이 고형암 프랜차이즈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RemeGen으로부터 도입한 PD-1xVEGF, RC148은 AbbVie의 고형암 전략을 한 단계 확장시켰다. AbbVie는 Emrelis 및 후속 c-Met ADC, Temab-A와의 병용 요법으로 훌륭한 보완재가 될 것이라 평가하였다. 특히 대장암과 폐암 영역에서 ADC + 면역·혈관 표적 치료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ABBV-400(c-MET ADC) 의 암종 확장에 주목

AbbVie는 현 c-MET ADC 파이프라인 Emrelis의 후속 c-Met ADC, ABBV-400(c-METxTopo-1 inh)을 기대하고 있다. ABBV-400은 폐암, 대장암, 췌장암, 두경부암, 난소암 등 다양한 암종으로 시도하고 있다. 특히 Emrelis는 주로 c-Met 과발현 폐암 환자에게 국한된 효과를 보이는 반면, ABBV-400은 대장암 후기 치료 환자 대상 Bevacizumab 병용 요법에서 ORR 26.7% 및 DCR 81%를 달성하였다. 이는 기존 표준 요법(Regorafenib/TAS-102) 대비 ORR 약 5~10배, DBR 약 1.6~2배 개선된 수치다. 이를 바탕으로 임상 3상 진입할 예정이다. 폐암은 EGFR wild-type 및 EGFR mut. 모두에서 강력한 초기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현재 용량 최적화 단계에 있다. 췌장암의 경우 긍정적인 초기 판독 이후 다양한 화학요법 병용 임상을 개시할 계획이며, 올해 두경부암 및 난소암에서 데이터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에셋의 범용성이 추가로 검증될 전망이다.

ABBV-706(SEZ6xTopo-1 inh)는 SCLC에서 우수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임상 3상 개시할 예정이다. 뇌전이가 있는 환자군에서도 63%의 높은 cORR을 기록하였으며 백금 기반 화학요법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재발한 초고위험군 환자들에서도 53%의 높은 반응률을 유지하였다.

다발성 골수종에서는 Etentamig는 단독요법 임상 3상 등록이 곧 완료되어 올해 중 ORR 데이터 판독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병용 요법 임상 데이터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며 Pomalidomide 병용요법으로 2차 치료제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한 임상 3상 개시를 검토 중에 있다.

GSK, Ultra-long acting에 대한 관심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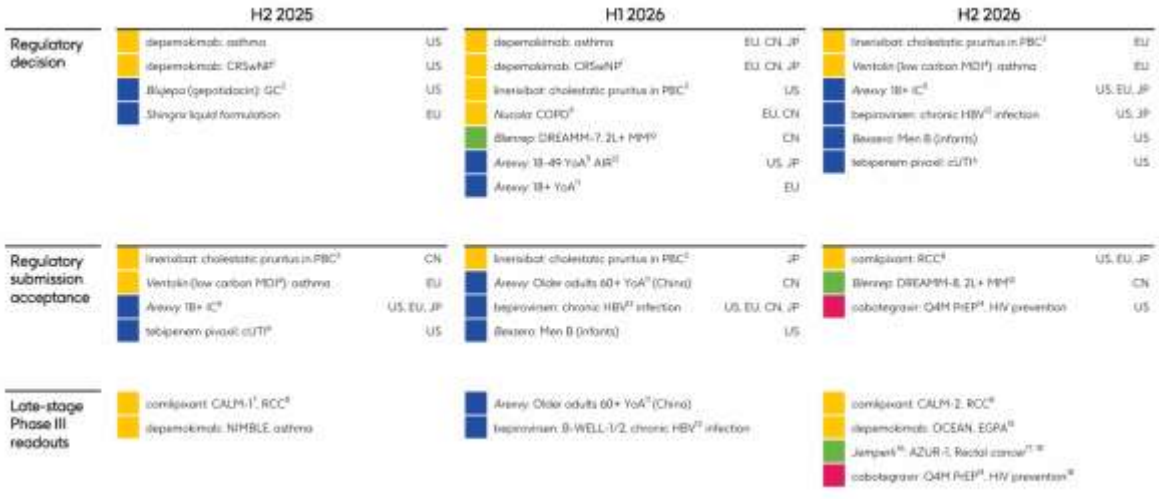
올해는 '25년 성과 확인의 해

GSK는 2025년을 'Banner-year'로 칭했다. '24년 총 13건의 성공적인 임상 3상 판독 이후 연초 제시했던 5건의 목표 중 5건(Penmenvy, Blujepa, Nucala, Blenrep, Exdensur) 모두를 승인으로 연결시키며 R&D 성과를 상업적 가치로 전환하는데 성공한 한 해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 하에서 GSK는 2031년까지 향후 성장의 하단을 지지할 15개의 대형 에셋과 약 25개의 차세대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에셋들은 각 $2bn 이상의 peak sales 잠재력을 가지며 15건 모두 규제 당국에 의해 허가신청 승인되었다. 작년 말 4건(Efimosfermin, Depemokimab, GSK'227, GSK'981)의 신규 핵심 임상이 시작되었으며 올해는 최대 10건이 예정되어 있다.

Ultra-long acting에 대한 관심 지속, 향후 BD도 해당 기조를 따를 전망

GSK의 핵심은 'Ultra-long acting(=장기지속형)'이다. 이에 세포 차원에서 cell-proposition 및 re-programming이 가능한 ADC 및 oligoneucleotide 등의 영역에 중심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Ultra-long acting' 측면에서 IDRx('25.02) 및 Boston Pharma('25.05) 인수가 있었으며 '25년 말 Empirico deal은 장기지속형 siRNA, LTZ deal은 TCE를 macrophage로 확장하는 딜이었다. IDRx 인수를 통해 확보한 GIST 표적 치료제 GSK'981(=IDRx-42)는 2차 치료제 대상 Phase 1a/1b에서 ORR 약 53%, 4차 치료 이상의 환자 대상 기존 SoC Ripretinib에 비해 경쟁력 있는 ORR 약 29%를 달성하였다. 현재 Sunitinib과 직접 비교하는 3상 진입이 예정되어 있다. Boston Pharma로부터 획득한 FGF21, Efimosfermin(월 1회 투여)은 Phase 2b에서 Fibrosis 개선 약 24%(위약보정) 및 MASH resolution 약 39%(위약보정)을 달성하였다. 현재 Efimosfermin은 Phase 3, ZENITH-1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22 2026년 GSK 핵심 Catalysts



자료: GSK,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Oncology - Blenrep (+ B7H3 ADC)

고난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획득한 Blenrep, 영국 초기 출시는 긍정적

GSK 향후 Oncology의 핵심은 BCMA ADC, Blenrep이다. 이는 안과 부작용 등으로 FDA 외부 자문위원회 등으로 부정적 권고를 받는 등 승인 거절 가능성이 대두되었으나, 2025년 10월 FDA 허가 획득에 성공하였다. Blenrep은 영국(GSK가 영국 회사니까)에서 '25년 6월 다발성골수종 2차 이상 치료제로서 가장 먼저 승인되었으며, 초기 출시 결과는 동사의 예상과 부합한다고 전했다. 현재 Tier 1 전문의 약 50% 및 2차 치료제 환자군 약 10~15%의 점유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Peak sales 약 $3bn 제시

Blenrep의 peak sales는 약 $3bn 이상으로 제시했다. 미국에서 Blenrep은 DREAMM-7 기반으로 3차 이상의 치료제로 승인받았다(OS HR 0.5, mPFS 약 12개월→30개월 등).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약 30%는 3차 치료에 해당하며 해당 시장 규모는 현재 기준 약 $20bn, 2035년 기준 약 $40bn으로 거대하다. 가장 우려되었던 안구 독성은 환자에서 Grade 2-3 이상의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잠시 투약을 중단할 계획임을 밝혔다.

향후 1,2차 치료제로 적응증 확장 전망 (+4제요법)

Blenrep 1차 및 2차 치료제로서 적응증 확장은 2028년 말을 목표로 한다. 2차 치료제 확장은 DREAMM-7 follow-up이 있으며, 추가로 1차 치료제 임상 DREAMM-10 및 2차 치료제 DREAMM-15(single-arm)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DREAMM-10에서 GSK는 안구독성 감소를 위해 부하 용량을 줄이고 투여 간격을 늘렸다. 또한 기존 Blenrep-Lenalidomide-Dexamethasone 3제 병용요법과 더불어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보다 강력한 치료를 견딜 수 있는 환자들을 위해 4제 병용 요법을 추가할 예정이다.

MM 시장의 발전은 진행 중 안구독성 해결 필요할 것

다발성골수종 시장은 JNJ가 선두주자를 공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Abbvie, GSK, ADC therapeutics, Roche 등의 다양한 제약사들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JNJ는 MajesTEC-3에서 DARZALEX/TECVAYLI 병용 요법에서 우수한 데이터를 발표하였다. 이렇듯 제한적인 접근성이 문제가 되었던 세포치료제는 in-vivo CAR-T 등의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중항체/삼중항체 등장으로 임상적 허들은 지속해서 상승하는 중이다. GSK는 이러한 Tecvayli 병용 요법이 저감마불린혈증 및 Grade 3 이상의 감염을 유발하는 점 등을 들어 Blenrep이 부작용 관리가 단순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는 GSK가 주장하는 $3bn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안구독성을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Blenrep의 payload는 근본적으로 안구독성을 유발하며 이를 linker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B7H3 ADC, Ivoscinemab 병용요법은 '26년 중반 시작

1월 12일, GSK는 Summit과 임상 협력을 발표하였다. Summit의 Ivonescimab(PD-1xVEGF)과 GSK의 B7H3 ADC, Risvutatug Rezetecan 병용요법을 위한 협력이다. 다양한 고형암종에서 임상을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 임상시험은 '26년 중반 시작될 전망이다.

Respiratory, Immunology, and Inflammation

호흡기 질환 강자, 장기 지속 치료제(연 2회) Exdensur 관심 집중

GSK는 현재 매출액의 상당부분이 Respiratory로부터 유래하는 호흡기 질환의 강자다. 대표적인 의약품 Benlysta 및 Nucala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다. Exdensur(성분명 Depemokimab)는 호흡기 질환 치료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혁신 파이프라인으로 평가하였다. 동사는 임상에서 호산구성 천식 악화 위험 50% 및 중증 악화 위험 70% 감소시켰으며, 특히 SWIFT-1 및 SWIFT-2에서 Exdensur를 투여 받은 환자 중 60% 이상이 임상 기간 동안 단 한 차례의 악화도 겪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Exdensur, 장기 지속 효능에 따라 침투율, 복약 순응도 상승 가능

이러한 Exdensur는 연간 단 2회 투여하는 투약 편의성이 순응도 개선의 결정적 임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현재 침투율 30% 미만, 연간 복약 순응도 35% 수준에 머물러 있는 폐질환 시장 내 의미 있는 차별화 요소로 평가하였다. 실제 폐전문의 약 80% 이상이 Exendsur가 중증 호산구성 천식의 새로운 표준 치료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당초 기존 호산구성 천식 시장 교체(switch) 수요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러한 의료진 피드백에 따라 약 50% 신규 환자에게 Exdensur을 1차 치료제로 처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AGILE은 Nucala에서 입증된 2년 이상 장기 효능 지속성을 Exdensur에서도 재확인하기 위한 확장 연구이다. 여전히 핵심 임상은 SWIFT-1 및 2이며 기확보된 데이터만으로 상업화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COPD, Nucala-Exdensur-HRS9821 등 포트폴리오

COPD는 다중 기전의 end-to-end 솔루션이 필요한 영역으로 판단한다. GSK는 Nucala-Exdensur-HRS9821 등의 다중 에셋을 토대로 COPD에서 선두주자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한다. Nucala는 입원 유발 악화 위험을 약 35% 감소시키며 호산구 수치 150 cells/μL 이상이라는 비교적 넓은 환자군에서 사용 가능하다. Hengrui에서 확보한 PDE3/4 후보물질인 HRS-9821은 호흡곤란(dyspnea)을 적응증으로 시장에 투입 예정이다. 또한 동사의 PDE3/4 저해제 에셋은 경쟁사인 Verona의 Ensifentrine과 다르게 건조분말 흡입기(DPI) 제형인 점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네뷸라이저 제형인 Ensifentrine은 순응도가 낮은 반면 GSK의 에셋은 휴대성 및 복약 편의성이 높은 DPI 제형이며 Trelegy와의 병용 시너지 또한 기대된다고 전했다.

Camlipixant, KALM-1,2 임상 결과는 올해 중반 발표

더불어 Camlipixant 임상 3상 KALM-1 및 KALM-2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KALM-1는 현재 결과 데이터 전송이 진행 중이며 KALM-2는 고빈도 기침 환자 비중을 확대를 위해 연구 기간을 연장하였다. KALM-2 마지막 환자의 첫 방문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중반 완료될 전망이다. 두 임상은 결과를 통합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일일 기침 빈도 약 15-20% 개선 시 유의미한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 해당 글로벌 환자 수는 약 28mn명이며 환자들은 하루 500~950회 기침을 하며 갈비뼈 골절, 요실금, 구토 등 심각한 증상을 겪는다. 이미 GSK는 임상 2b상 SOOTHE를 통해 기침 빈도 감소가 위

약군 대비 34% 감소 결과를 재확인했다. 특히 경쟁 약물인 Merck의 Gefapixant 미각 장애 발생률이 60%인 반면 Camlipixant 약 6% 미만으로 부작용 측면에서의 강점이 있다.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